

SUNBO NEWS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 소식

2018년 사업 실적 발표 및 2019년 사업계획 보고회 실시 전사 현황 파악 및 목표 공유



우리 회사는 12월 14일 부산 평안리 호메르스 호텔 대연회장에서 '2018년 사업실적 발표 및 2019년 사업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전사 대리급 이상의 임직원 110명이 참가한 이번 보고회는 전사 성과 지표 재점검 및 분석을 통한 발 빠른 대책과 생존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오전 10시 사가 제창에 이어 최금식 회장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전과 오후 1, 2부에 걸쳐 진행된 보고회의 첫 발표자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인베스트의 최영찬 대표, 오중훈 대표, 고병철 대표였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실적을 총괄하여 보고하였으며 다가오는 2019년에는 무궁국 기업을 목표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하였다. 또한 2017년 설립된 라이트하우스인베스트의 고병철 대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한 실적 및 창업투자회사로서 단단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HSE 김상진 팀장의 '전사 HSE 현황 발표'에서는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이 무재해 1,400일을 넘겼다는 의미 있는 보고를 통해 참가한 임직원의 호응을 얻었다. 이로써 1부 행사를 마친 전체 인원은 단체 사진 촬영 후 호메르스 호텔 2층에 마련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2부에서는 각 공장 및 부서별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 발표가 진행되었다. 경영지원 부서의 서재욱 상무는 비상 경영 체제로 감축되었던 복지제도를 재시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재시행되는 복지제도는 자녀 입학 축하금, 자녀 학자금, 개인 기념 선물, 본인 학자금, 동호회활동 지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주택 마련 축하금이다. 또한 2부에서는 '미래인재 기업가정신에 답이 있다'의 공동저자인 김미란 대표이사의 특강이 마련되었다. 김미란 대표는 "혁신은 창조적 파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수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였다. 한계는 스스로가 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열정적인 업무 태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하였다.

보고회의 마지막 순서는 최금식 회장의 강평이었다. 최금식 회장은 "2019년에는 우리 선보패밀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모두 내 탓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내 일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선보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임직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내년 한해도 윤리경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선보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회사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다. 전사가 한자리에 모여 각 사업장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나누며 목표를 공유한 이번 발표회가 2019년 한 단계 더 도약할 선보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문

인도 MANAS 대표이사 본사 방문



지난 12월 12일 인도 해양 및 사회기반 시설 기업 마나스(MANAS)의 니킬 가드카리(Nikhil Gadkari) 대표이사가 본사를 방문하였다.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은 주인도총영사관에서 주최하였으며, 정덕민 주인도총영사도 함께하였다.

오후 4시 반경 본사에 도착한 방문단을 최금식 대표이사, 플랜트 설계 및 기술 연구부 진병석 부사장, 사업기획부 김청욱 상무, 경영지원 서재욱 상무, 플랜트 기술영업부 이지영 부장, 사업기획 신사업 담당 이우철 차장이 맞이하였다. 먼저 홍보관과 설계 사무실을 둘러본 방문단은 의전실에서 진행된 회사 소개를 들으며 본격적인 일정을 이어갔다. 이후 본회의에서 양사는 인도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할 LNG 관련 법규와 선보의 LNG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나스 측에서는 당사의 주력 제품인 수처리시스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팅 후에는 대대 2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실제 제작 중인 제품과 테스트룸을 둘러보며 선보의 기술력을 어필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선보가 향후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남이었다. 양사는 향후 마나스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문

부산 기계공고, 히로시마 고교 - 지역 대표 기업 탐방



11월 21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히로시마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회사를 찾았다.

본사 4층 교육장에 도착한 38명의 학생들은 사업기획부 최지영 사원의 회사소개를 들은 후 경영지원 서재욱 상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궁금했던 직업전선과 선박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미국 나스코에 납품한 FGSS(Fuel Gass Supply System)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컸다. 준비한 과자와 음료를 먹을 때에는 영락 없이 청소년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때만큼은 배움 앞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진지하여 엔지니어를 꿈꾸는 진중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

다. 이후 3층으로 이동하여 설계부서 및 연구소를 견학하였다. 본사 탐방에 이어 구평 1공장으로 이동한 방문단을 구조팀 김태경 차장이 맞이하여 함께 공장 견학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문화 교류는 물론 양국의 꿈나무들이 지역 대표 기업을 탐방하며 넓은 견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지역 대표 기업으로 우리 회사가 선정된 것에 큰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학생들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문인력으로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회사 소식

설계부 표준분과 성과 발표회



11월 23일 설계부는 표준분과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 발표회는 활동 결과 보고와 분과원들의 애로 사항 청취 및 공유, 발전 방향 토론 등을 통해 2018년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설계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PORTABLE TANK 설계 지침 작성을 마무리하며 작성 내용 발표 및 개선점 공유 시간을 가졌다.

기업의 발전은 직원들 개개인의 발전에서 비롯되며 이는 또한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설계부 각 담당자들은 지침서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장에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학습하는 습관이 길러지고, 그 습관은 본인 성장 및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며, 나아가 회사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부 최순찬 부장은 "바쁜 업무로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 본의 아니게 담당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자는' 목표로 출발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며 함께 학습하는 과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수고해준 부원들을 격려했다.

다음은 이번 성과 발표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의 소감이다.

담당자 소감

- 오창배 과장(설계 6)** "인진태 상무님께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시행하신 분과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고, 미약하나마 설계부 동료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완료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 박수영 계장(설계 2)** "TANK들에 대해 조사하고 토의하여 알게 된 내용들은 향후 신입 사원 및 TANK를 시작하는 인원에게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유병창 과장(설계 1)** "분과활동을 하면서 시스템에 대하여 공부를 다시 하고 각 장비들 및 액세서리의 기능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 김성주 대리(설계 6)** "TANK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계 지침을 작성했는데, 제 자신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과회의였습니다. 앞으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천병철 대리(설계 5)** "TANK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정보 및 주의사항을 공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ANK 설계 지침이 설계 업무 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남준 대리(설계 5)**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 공지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 임민지 사원(설계 1)**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접하지 못했던 TANK에 대하여 알 수 있었으며, 자료 수집과 토론을 통해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 남예철 대리(설계 1)** "파트 특성상 TANK UNIT를 접할 일이 없어 TANK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분과활동을 통해서 여러 TANK 관련하여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김동현 사원(설계 2)** "다양한 TANK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TANK를 설계할 때 모르는 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TANK 지침서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공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실시 - 같이 하는 연탄 나눔, 가치는 따시DAY



지난 12월 1일 선보패밀리는 '같이 하는 연탄 나눔 가치는 따시DAY'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역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연탄 나눔' 후원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배려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영세가장 외 조손 가정들에게 연탄 1만 장을 전달하는 나눔의 행사였다.

당일 오전 8시부터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에 집결한 선보패밀리는 총 2,000장의 연탄을 20가구에 직접 배달하는 봉사를 하였다. 지계적재조 4명, 지계조 36명, 가정 적재조 10명 등 50여 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였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2012년부터 매년 이어져온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이다. 특히 이날은 봉사를 희망하는 임직원의 자녀들이 술선수범하며 부모와 함께 땀 흘리는 흐뭇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약 2시간 동안 남녀노소를 떠나 함께하며 '참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경영지원 이대현 계장은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연탄을 운반하기 위해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이 고되기는 하였지만, 강한 한파가 오기 전 에너지 배려 세대에게 연탄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고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힘든 것도 잊은 채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하며, 매서운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이날 '사랑의 연탄 나눔'이 지역사회 에너지 배려 세대들에게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선보패밀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내 복지

겨울철 장갑 나눔 행사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 12월 10일, 전사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아침과 점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를 통해 전사 직원들에게 고급 가죽 장갑 약 800켤레가 지급되었다. 이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격무에 노고가 많은 임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지급한 동계 선물로, 사내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사 직원에게도 모두 배포되었다. 직원들이 한층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며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 최금식 회장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어느새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도 애써주신 선보 패밀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상

2018년 글로벌 선도기업 모범직원 포상 행사



경영지원부 최두영 과장이 지난 12월 9일 '2018 선도기업 송년의 밤' 행사에서 글로벌선도기업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글로벌 선도기업 모범직원 포상은 기업 현장에서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한 모범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1년 선보가족이 된 최두영 과장은 그동안의 성실한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번 포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최두영 과장은 "입사 8년차 한 해를 의미 있는 상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늘 함께 노고가 많으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며 여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을 맞이한 최두영 과장처럼, 선보패밀리 모두에게 행운과 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회사 소식

선보 낚시 동호회 '선보피싱회'가 건져 올린 대어



TV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12월 1일 우리 회사에도 대어를 낚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은 사내 낚시 동호회 '선보 피싱' 팀원들이다. 이날 다대 3공장 생산관리 석종현 과장이 짜낚시로 무려 45cm나 되는 감성돔을 잡아 올렸다. 선보 피싱은 타 부서 간 화합 및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좀 더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고자 조직되었으며, 현재 사업기획부 김청옥 상무 이하 16명이 활동 중이다. 6명의 기존 회원들은 모두 경력 5년~10년 이상의 베테랑들로, 최근 10명 가량의 신입회원들이 함께하며 인원이 늘었다. 동호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동안 모은 회비로 기본 장비인 바다 낚시대, 릴, 원줄을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보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채비하는 방법 및 낚시의 여러 기본을 교육하면서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료애를 돈독히 함은 물론, 펄떡이는 각종 생선을 낚아 올릴 때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픈 선보패밀리라면 '선보 피싱'의 문을 두드려봄이 어떨까.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동안 모은 회비로 기본 장비인 바다 낚시대, 릴, 원줄을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보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채비하는 방법 및 낚시의 여러 기본을 교육하면서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료애를 돈독히 함은 물론, 펄떡이는 각종 생선을 낚아 올릴 때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픈 선보패밀리라면 '선보 피싱'의 문을 두드려봄이 어떨까.

회사 소식

프라모델 동호회에서 색다른 성취감 경험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무언가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같은 맥락으로 프라모델 동호회는 좋은 분들과 작품을 완성시켜 성취감을 느끼고 도색 등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우며, 정보를 공유하는 따뜻한 모임이다. '프라모델'에 생소한 사람들은 단순히 '어른의 장난감' 정도로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 회사 제품 생산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런너에서 각 부품을 떼어내어 준비하고 색에 맞춰 도색하여 접착하는 과정, 설명서를 참고로 도색된 제품을 조립한 후 조립 및 도색 상태를 점검하고 전시하는 과정이 자체 준비로부터 도장, 용접, 조립, 품질점검 및 납품까지의 제품 생산과 닮아

있다. 동호회에는 컴프레서 및 에어브러쉬, 기본색 라카, 도색 작업 매뉴얼 등이 구비되어 있어 신입 회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신입 회원들에게는 'HG 건담' 선물 및 해외 직구 모델 공동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지니 관심 있는 선보 패밀리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

안전

동절기의 산업안전사고와 예방

12월~2월 사이의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해 시설물과 근무환경의 작은 변화, 난방기구 사용 작업자의 건강 이상 증가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대책을 숙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

건강 이상

- ✔ **원인**
 - 추위에 의한 신체 경직으로 유발되는 불완전한 행동
 - 혈관수축 등으로 고혈압,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
 -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위 동상과 저체온증
- ✔ **예방**
 - 방한복 지급 및 젖은 상태의 신발, 장갑 착용 금지
 - 작업 전 충분한 몸풀기 운동으로 원활한 혈액순환 유도

전도, 붕괴

- ✔ **원인**
 - 급경사지역, 요철부분 등 작업장의 결빙
 - 유입수 결빙에 따른 지반 팽창
 - 폭설로 인해 하중에 취약한 가설구조물 변형, 미끄러짐

화재와 폭발

- ✔ **원인**
 - 난방기구의 과열 누전 등으로 주위 가연물에 착화
 - 전동기, 변압기 등 전기기기 과열
 -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 취급 부주의에 의한 폭발
 - 용접 작업으로 생기는 불티, 배선의 과열로 인한 전선피복
- ✔ **예방**
 - 난방기구 주변에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금지
 - 화기 주변,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 안전승인 제품 사용 및 문어발식 배선 사용 금지
 - 난방기구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 절대 금지 등

예방

- ✔ **예방**
 - 적설 및 결빙 확인 후 모래, 부직포로 미끄럼 방지 조치
 - 노면수 유입 방지, 배수시설 설치
 -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설구조물의 눈 제거

생일을 축하합니다

- ☑ **본사**

윤기동(12.03)	김정석(12.07)
최순찬(12.08)	김동현(12.31)
이현수(음12.09)	
- ☑ **1공장**

정차균(12.11)	백관우(12.14)
명철환(12.15)	조숙희(12.15)
신승훈(12.18)	김대관(12.26)
강현욱(12.27)	장형구(12.29)
김수한(음12.28)	
- ☑ **2공장**

타오싱(12.11)	지우토모(12.30)
김종민(음12.15)	정상규(음12.22)
- ☑ **3공장**

채규만(12.15)	
------------	--
- ☑ **구평공장**

구성민(12.05)	계영식(12.13)
조남석(12.15)	이현철(12.16)
이성철(12.18)	안동주(12.19)
이철호(12.19)	송정호(12.27)
장호준(12.28)	정용수(12.31)
하만수(12.31)	김태준(음12.27)
- ☑ **구평1공장**

박용범(12.02)	박종훈(12.03)
신용재(12.04)	고영팔(12.06)
이준호(12.06)	임병준(12.06)
강정근(12.09)	김경연(12.10)
민정호(12.12)	김대중(12.18)
김대성(12.19)	김형섭(12.21)
박종운(12.23)	김영철(12.24)
박현철(12.24)	임일산(12.24)
윤정아(12.25)	박재영(12.29)
신영숙(12.30)	
- ☑ **영암공장**

수산타(12.02)	구마라(12.07)
이강윤(12.10)	최상식(12.19)
박명관(12.28)	

임사 기념일

- ☑ **본사**

김소연(12.01)	이명호(12.01)
문해기(12.03)	이수진(12.21)
이형재(12.21)	이화진(12.21)
- ☑ **1공장**

김오석(12.16)	최진희(12.16)
박영호(12.27)	
- ☑ **2공장**

김명운(12.03)	김남석(12.05)
캠비발(12.16)	타오싱(12.16)
푼 투(12.16)	
- ☑ **3공장**

권태영(12.01)	상 굴(12.16)
------------	------------
- ☑ **구평공장**

제승수(12.01)	하경원(12.01)
김건희(12.05)	김충복(12.05)
윤성열(12.05)	정경호(12.05)
박현수(12.11)	김태준(12.19)
최임청(12.22)	
- ☑ **구평1공장**

김용보(12.01)	박선우(12.01)
이준호(12.01)	정영준(12.01)
김범석(12.02)	최기웅(12.02)
이인규(12.03)	김용덕(12.20)
전동혁(12.23)	장상권(12.26)
김현진(12.30)	
- ☑ **영암공장**

김동선(12.01)	강상우(12.03)
권상웅(12.08)	